

성령의 성전

핵심 구절: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19

선정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12-20

오늘의 수업에 인용된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부도덕함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너희의 자랑은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는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5:6). 그들은 거짓된 형제애의 감각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런 상황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의하게 한 한 죄인에 대해 그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교제에서 내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이 행동을 그들의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7절).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한 형태로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님의 백성인 교회에 불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고린도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의 백성에게 붙은 일부 전도자()의 과거 습관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의 일반 주민들은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 중 그리스와 로마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베누스가 특히 숭배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전 숭배에 불륜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일부는 처음에는 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경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었으며, 바울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잘못에 맞서 싸운 것을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고린도후서 2:1-11). 바울은 이 형제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기쁨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취한 조치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그 개인이 교훈을 배웠다는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그를 슬픔으로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바울은 교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교제 속에 회복시켜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이 조치를 취한다면, 바울은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도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심 구절은 몸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잘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성전은 상징적으로 말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을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로 여겼으며, 그들 중 신실한 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성전은 그 벽 안에 우상 숭배가 세워지면서 더럽혀졌습니다.

성전 상징은 신약성경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각 신자의 육체적 몸을 "성전"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전 이미지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그는 "너희도 살아 있는 돌처럼 영적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5) 여기에서 헌신한 각 신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적인 “집” 또는 “성전”의 일부로

준비되고 있는 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 히브리서
3:6; 에베소서 2:19-22; 마태복음 6:10